

# 역대급 폭염 예고... 올여름 전력 수요 사상 최대 전망

8월 셋째 주 정점 예상... 98.8GW까지 치솟을 듯 정부 "108GW 확보... 안정적 전력 공급 문제없다"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국민 부담 덜기로

## 기후부, 여름 전력수급 대책 발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력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8월 셋째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최대 전력수요가 94.1기가와트(GW)에서 98.8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전력수요였던 2024년의 97.1GW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8월 셋째 주 전력수요는 평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경우 94.1GW로 예상했다. 반면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장기간 폭염과 태풍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면 최대 98.8GW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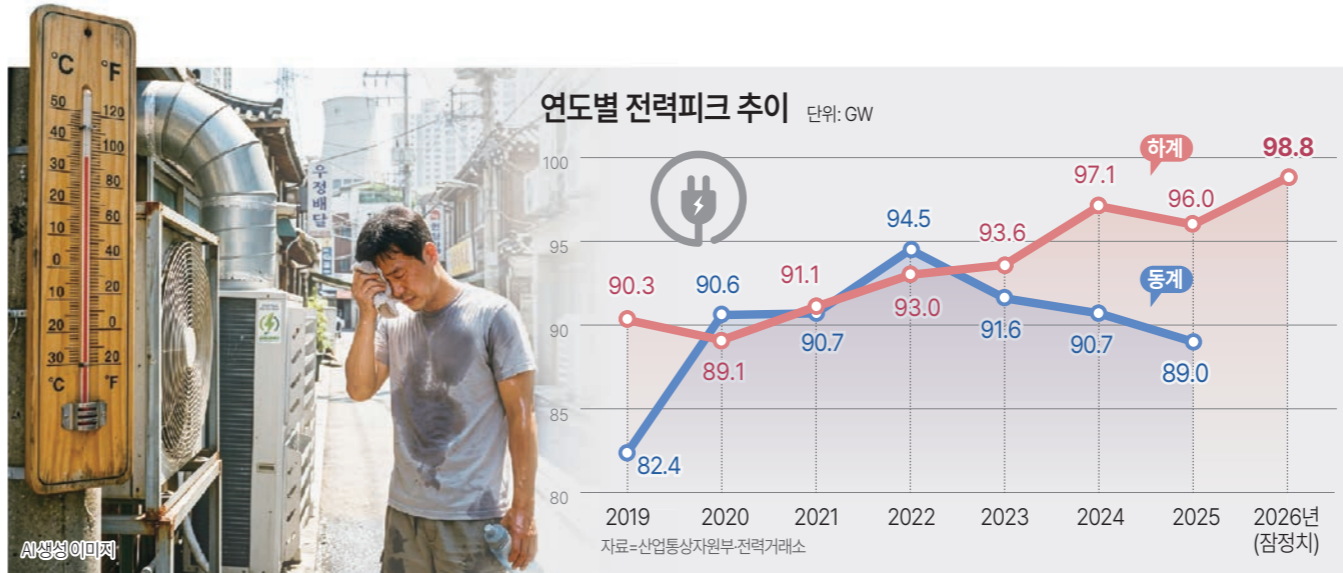
다만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전력 공급능력을 지난해보다 2GW 늘어난 107GW로 확보했으며, 최대 전력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하더라도 예비력은 8.2GW를 유지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폭우와 태풍에 따른 전력설비 고장이나 기록적인 폭염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력 수요 예측치는 최근 30년 가운데 기온이 높았던 상위 10개년도와 상위 3개년도 평균 기온, 태양광 발전 이용률 등을 반영해 산출된 수치다.

정부는 2023~2025년 여름철 전력수요 정점 시기를 8월 둘째 주로 예상했지만, 올해는 이를 한 주 늦춘 셋째 주로 전망했다. 7월 말~8월 초에 집중되던 직장인 휴가가 분산되면서 전력수요 정점도 8월 셋째 주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력수요 정점이 정부 예상(8월 둘째 주)보다 늦은 넷째 주에 나타나면서 기후변화와 생활 패턴 변화가 기존 전망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최대 전력수요는 96.0GW로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94.1~97.8GW) 범위 내에 있었다.

기후부 전망대로라면 올여름 역대 최대 전력수요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역대 최고치는 2024년 8월 20일 기록

한 97.1GW이며, 2위와 3위는 지난해 기록한 96.0GW(8월 25일)와 95.7GW(7월 8일)다.

한편 정부는 여름철 전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는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 전력 사용량이 300kWh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은 5만7760원에서 4

만6320원으로 19.8%(1만144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월 최대 2만 원까지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7~9월에는 전기 공급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고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하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선민 기자 smkim@skyedaily.com

## 한국 5척 호르무즈 추가 통과 이틀간 9척 탈출... 13척 남아

한국 선박 다섯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송 선박 5척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통과한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1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목적지가 한국인 선박은 1척이다.

앞서 24일 4척의 선박이 탈출에 성공했다. 해협 봉쇄 이후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우리 선박은 13척에 달한다.

통과 일자	2026년 6월 25일
통과 수	5척
남은 선박	13척
승선한 한국인 선원	21명
목적지 한국인 선박	1척
해협 내 한국인 선원	87명 (외국선박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은 13척으로 줄었고 한국인 선원은 우리 선박에 54명, 외국 선박에 33명 등 총 87명이다. 해협 내측에 남아있는 한국 선박에 대해 해수부와 외교부 등은 식품·선용품·유류 등 항해에 필수 물품을 점검하고 통항 동향 정보를 제공해 선사의 자체 운항계획 수립을 돕고 있어 한국 선박들도 순차적으로 빠져나올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번 통항을 포함해 모든 우리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우리 정부는 해수부, 외교부, 재외공관이 원팀이 돼 유관국들과 협의를 지속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훈 기자 yhle@skyedaily.com

## 영풍·MBK, 고려아연 사외이사 후보 10명 이상 접수

### 경영·회계·재무·법률·ESG·기술 등 분야 후보 망라 외부 전문가 중심 독립 후보 심사위서 공정·투명 심사

영풍·MBK파트너스는 6월 5일부터 진행한 고려아연 분리전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공개 추천 접수를 마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개 추천 절차를 통해 기업경영, 회계재무, 법률·컴플라이언스, ESG, 산업기술, 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10인 이상의 후보가 추천됐다. 후보 추천에는 고려아연 주주를 비롯해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관, NGO, 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영풍·MBK는 특정 이해 관계에 치우친 후보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영풍·MBK가 사외이사 후보를 공개 추천 방식으로 모집한 것은 최근 고려아연의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 관련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 소액주주 단체는 15일 고려아연의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 등에 고발장 및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공고에서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자격은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를 요구했으며 동시에 '주주 1인당 1인의 후보 추천 가능'이라는 단서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11월 28일 기준 총가 134만2000원을 적용하면 0.1%는 307억 원이다. 여기에 1인당 1인 후보 추천으로 소액주주 연대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일반 소액주주의 접근을 제한해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영풍·MBK는 현재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이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와 거버넌스 훼손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영풍·MBK가 감사위원회 관련 논란에 적극적으로 나서 의문을 제기했다. 영풍·MBK는 3월 말 기준 0.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그룹 또는 상당수가 회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주들이라

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이에 더해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및 청호컴넷 관련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하라고 압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적대적 M&A를 위한 수단으로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풍·MBK는 독립적인 후보 추천 절차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풍·MBK는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독립 후보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독립 후보심사위원회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최종 후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 사람 중심 휴먼르네상스 심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진심 담은 이야기로 마음을 브랜드하다

**SkyDaily**  
변화의 본질을 담아, 내일의 브랜드 이끌다  
심성브랜드연구소